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에콰도르와 페루 국경 분쟁의 원인과 결과: 신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분석을 중심으로

조원선

1. 서론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오랜 기간 분쟁을 겪어온 지역은 특히 문제는 심각해진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남중국해 분쟁, 중국과 일본의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등 많은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복수의 나라간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경 분쟁에 연루된 행위자 국가로 하여금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감정의 영역까지 가서 평화적 해결이 더욱 힘들어진다.

하지만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은 170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분쟁 평화협정의 모범이라고 여길 만큼 창의적이고 평화롭게 해결되었다. 오래 지속된 만큼 해결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마지막 전쟁인 1995년 세네파(Cenepa) 전쟁 이후 겨우 3년 만에 해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학자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고, 이는 다양한 연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기술이나 비즈니스 협상 이론을 중심으로 마이크로한 이론을 적용하여 위 사례를 파악한다. 하지만 에콰도르와 페루 분쟁과 협상과정은 그보다 큰 국제정치학적인 시각

으로 봐야한다.

에콰도르와 페루의 분쟁의 시발점은 패권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스페인이 물리감으로써 중남미의 단극체제가 무너지자 발생했고, 해결 역시 단순한 협상뿐 아니라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substance)과 국제 수준의 협상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단순한 기술이나 협상이론을 넘어서서 국제체제 내에서 구조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쟁의 발생과 해결은 국제정치학적인 시각을 통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와 페루 국경 분쟁의 원인과 결과인 평화협정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고 신현실주의의 시각으로¹⁾ 분석한 후, 한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과 평화협정: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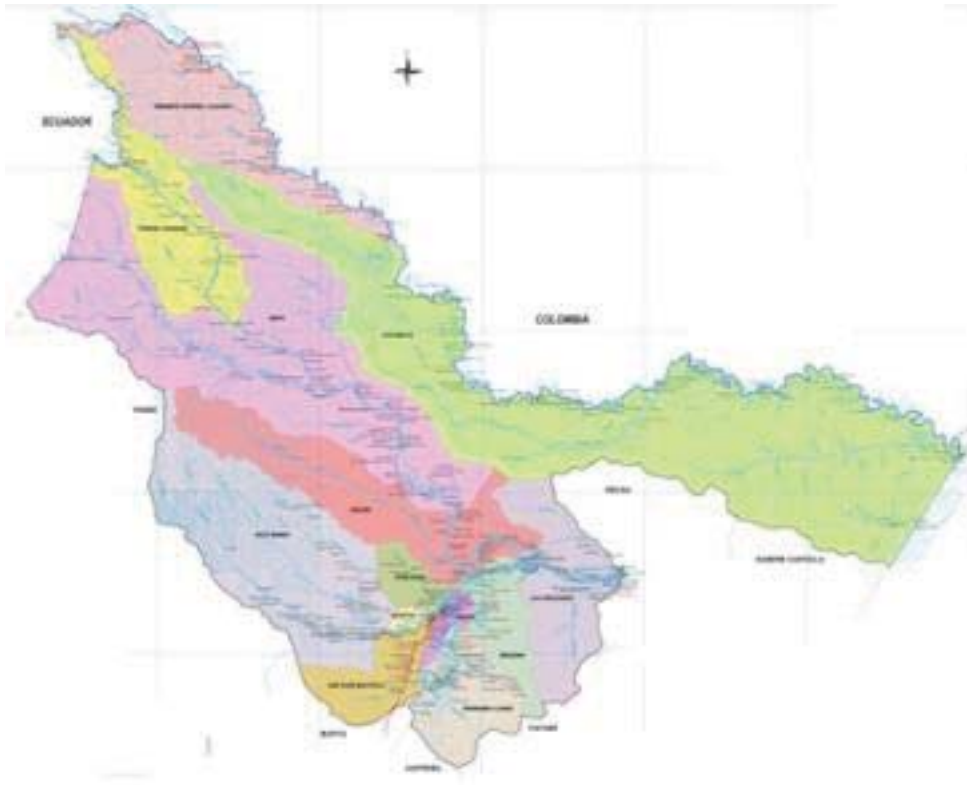
1) 국경 분쟁의 시작

16세기 스페인의 중남미 침략 이후, 에콰도르와 페루가 속해있는 중남미 지역은 스페인 중심의 단극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서 패권적 위치를 가지고 있던 스페인이 무너지며 중남미 지역은 독립하게 되었고, 단극체제이던 이 지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 중남미에서 탄생한 신생국은 이른바 우티 포시테시스주 리스(Uti possidetis juris)²⁾ 기준에 의거하여 각기 행정구역과 국경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당시 신생 독립국은 식민지 시대의 법률과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국경선을 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실효적 점유를 주장하는 신생 독립국과 식민지 시대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국가 사이의 분쟁을 야기했다.

에콰도르와 페루의 분쟁 역시 불분명한 국경선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1) 이 글에서는 왈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 정치적 하위체제가 독립을 획득할 때, 기존의 행정구역이 국제적 경계가 된다는 국제법의 기준



마이나스(Mayans) 지역 지도(출처: <http://www.perutoptours.com>)

서 발생했다. 이 이해 차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이는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1828년부터 1998년 역사적인 협정 타결에 이르기까지 총 34차례의 무력 분쟁으로 이어지며 서반구에서 가장 오래된 국경 분쟁으로 기록되었다(The Carter Center 2010). 역사적인 평화협정 이전에 최소 13번의 평화협정 노력과 교황, 스페인 국왕, 미국 대통령 등이 중재자로 등장했지만, 단 한 번도 비준되지 않았다. 분쟁 지역은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진 않았지만 19~20세기를 걸친 분쟁으로 인해서 쌍방은 그 지역을 자기 나라 영토인데 상대 국가가 적의를 가지고 침략한다고 여기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Palmer 2001). 이는 두 국가 모두 단순한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자기 땅이었는데 상대국의 도발 혹은 침략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16세기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63년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키토 아우디엔시아(Real Audiencia de Quito)를 선포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아마존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Peneder 2005, 114-115; Jacobs 2012). 18세기 초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 부왕령을 설치함으로써 키토 아우디엔시아는 그 일부가 되어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17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체결한 마드리드 조약으로 키토 아우디엔시아는 아마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또한 1802년에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분쟁의 대상이던 마이나스(Maynas)와 키호스(Quijos) 지방에 대한 점유와 포교에 대한 책임을 키토 아우디엔시아에서 페루 부왕령으로 이전한다는 칙령을³⁾ 공포했다(Peneder 2005). 이는 두 지방이 에콰도르에서 페루에게로 넘어감을 의미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던 중, 1822년 키토 아우디엔시아는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고 그란 콜롬비아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다. 1828년부터 1829년 그란 콜롬비아는 1802년 칙령으로 넘겨준 두 지방을 둘러싸고 페루와 전쟁을 일으켰다. 1828년 6월3일 그란 콜롬비아 대통령 시몬 볼리바르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이 전쟁은 그란 콜롬비아의 승리로 끝났고 1829년 9월 22일 팔 라레르(Gual Larrer) 조약을 통해 종결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이던 분쟁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란 콜롬비아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로 1831년 분리되었다. 여기서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 에콰도르는 1830년 8월 11일 그란 콜롬비아와 페루가 서명한 페데몬테 모스케라 의정서(Pedemonte Mosquera Protocol)에 의하여 양국의 국경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페루는 이 협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⁴⁾ 이후, 키토에서 시작하여 그란 콜롬비아에서 분리된 에콰도르와 페루 부왕령에서 페루가 된 두 나라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1823년부터 1942년까지 총 11번⁵⁾의 협력의 시도가 있었으나, 19세기

3) 이 칙령은 추후 페루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에콰도르의 기준점이 되었다.

4) 이것의 원본은 콜롬비아나 에콰도르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페데몬테와 모스케라는 서로 다른 지역을 생각했으며, 에콰도르와 페루 모두의 국회에서 비준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이 협약에 서명하기 직전에는 에콰도르는 그란 콜롬비아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콜롬비아의 협약 복사본은 페루에게 불충분한 증거였다.



리우 의정서 체결(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Rio_Protocol)

내내 두 나라는 실제적인 협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두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라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이유도 있었지만, 후에 등장할 4개 보장 국가와 같은 협력을 야기하는 요인이 없었고 서로 자존심 싸움만 지속되고 있었다.

서로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만든 1941년 전쟁 이후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1942년 리우 의정서(Rio Protocol)를⁵⁾ 체결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리우 의정서는 두 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보장 하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는 두 나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50년이 지나서야 완전하게 이행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중이어서 중남미에 신경 쓸 여력이 많이 없었다. 그래

5) 1823, 1829, 1830, 1832, 1860, 1887, 1890, 1904, 1924, 1936, 1942년.

6) 1942년 리우 의정서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Palmer(1997) 참조

서 미국은 중남미에서의 분쟁 해결을 급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체결된 조약의 내용은 페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당시 리우 의정서는 산티아고 강과 사모라 강 사이의 분수령을 에콰도르와 페루의 경계로 정했는데, 두 강 사이 세네파 강을 빼고는 분수령이 없었다. 이는 결국 1,500km 접경지역 중 78km가 다시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1995년 세네파 전쟁을 야기했다. 하지만 리우 의정서는 보장국이 분쟁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었고(Palmer 1997), 이는 1995년 전쟁이후 힘을 발휘하게 된다.

2) 1995년 개정된 리우 의정서와 보장국의 역할

1942년의 협약 이후에도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었고, 1960년 에콰도르의 대통령 벨라스코 이바라는 1942년 협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이라며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81년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는 1995년까지 계속적인 분쟁을 낳게 되었다.

결국 1995년 1월 이후 리우 의정서는 개정되었다. 리우 의정서는 국제법상 정당한 조약이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다(Palmer 2001). 리우 의정서의 의의는 두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적 토대를 위에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는 보장국들로 분쟁해결 과정에 관여했다. 보장국은 우호적인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의정서에 의거하여 분쟁에 참여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두 국가를 중재하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으며, 페루와 에콰도르가 내린 결론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보장국의 역할은 에콰도르의 기준점⁷⁾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1960년도와 1995년도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1995

7) 기준점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4장에서 다룰 것이다.

년 새로운 리우 의정서를 에콰도르가 수용한 이후 보장국의 책임감 역시 커지며 다자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탄생하였다. 국경 합의 문제와 재정지원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통상항해조약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신뢰 구축은 브라질에서 진행하며 국제 협력에 대한 다자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에콰도르는 통상항해조약을 통해 역사적으로 갈망하던 아마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협상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⁸⁾, 에콰도르는 전 국민적 열망을 성취한 것이었다.⁹⁾ 이를 통해 합의가 가속화되었고, 1998년 역사적인 협상테이블에 보장국 및 에콰도르와 페루의 대표단이 모였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나, 페루는 아직 분쟁지역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페루는 보장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반대하였다. 또한 에콰도르가 점령하고 있던 티인사(Tiwinza) 지역을 다수의 국제지역 전문가들이 페루의 영토로 판단하자 갈등은 격화되고 협상은 늘어지며 무력충돌의 기미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Palmer 2001, 39).

이 무렵, 즉 1998년 8월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밀 마우아드(Jamil Mahuad) 에콰도르 대통령이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다. 배석자 없이 두 정상은 단독 정찬 회담을 한 후¹⁰⁾ 보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장국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요청했다(Simmons 1999, 20). 그리고 보장국 미국 대통령과 회의를 한 후에는 보장국들과 양국이 의무적으로 수락해야만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8)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엘리트 중심의 페루 정치와 달리 에콰도르는 대표단의 힘이 매우 약했다. 페루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고 있었고, 에콰도르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정부였기 때문이다(Palmer 2001, pp. 41-44). 따라서 에콰도르 대표단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를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페루의 정치 엘리트는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린 반면, 에콰도르는 국내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콰도르 국민과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권리 문제에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

9) 에콰도르의 주요 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 에콰도르 국민은 이미 찬성한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그 조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한다.

10) 샤피로는 이때 마우아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두 정상의 단독 회담 자체가 에콰도르와 페루의 공동협상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협상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대외이 미지구축에 매우 도움이 되어서 협력에 가속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Shapiro, 2017, 128-129.)



콘도르 산맥 풍경(출처: <http://farm4.static.flickr.com>)

해 10월 26일 리우 의정서 보장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적극적인 중재로 회담이 개시되어 브라질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1998년 1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과 마우아드 에콰도르 대통령이 78 km에 이르는 양국 국경을 획정하는 협상에 돌입하였고, 마침내 동년 10월 26일 170년간 지속된 국경 분쟁의 종식을 고하는 국경 협정인 브라질리아 합의가 조인됨에 따라 양국 간의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한 이 브라질리아 합의를 통해 양국의 분쟁지역 중 하나이던 콘도르 산맥에 접경평화공원으로 만들고 자원 이용의 공동 관리와 자유통행을 보장하며 양국 간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양국의 평화정착에 역시 기여했다.

3) 협력당시 경제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

협력당시 두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은 새로이 에콰도르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밀 마우아드는 페루와의 평화협정을 최우선으로 하

는 공약과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또한 마우아드 대통령은 본 선거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인 파비안 알라르콘이 정신질환으로 탄핵당하여 치러진 선거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다. 마우아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나 정권 안정성 면에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보다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는 마우아드로 하여금 공약을 잘 지켜서 정통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정권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공약인 평화협정이 실패할 경우, 지지율 하락은 물론 정치인의 생명은 거의 끝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에콰도르 경제는 당시 대통령이 최우선 공약중 하나로 내세울 만큼 최악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페루와의 전쟁으로 인한 지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에콰도르와 페루 둘 다 막대한 사상자를 낸 1995년 전쟁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의 국방비가 지출되었다. 에콰도르는 1960년대 오일이 발견된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였으나 수출구조는, 오일에 집중하고 농업이 주요 수출원이었다. 오일 가격 완화는 1980년대와 90년 스태그네이션을 야기했으나, 다른 수출품이 없어 오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는 페루와 국경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해외자본 역시 거의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1998년 에콰도르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Jacome 2004; Martinez 2006; Montiel 2014).

이 부분에서 마우아드 대통령에 따르면, 당시 에콰도르는 경제 위기를 맞아 더 이상 페루와의 전쟁을 할 수 없었고, 국방예산을 줄여서라도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을 성급히 마무리하기에는 국민들과의 합의가 아직 부족했다. 당시 에콰도르 국민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페루가 자신들의 합법적인 영토를 침략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Roger & Shapiro 2006).¹¹⁾

페루도 상황이 비슷하였다. 우선 페루 경제는 1990년도부터 광산, 전기, 전화 산업부분에 걸쳐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해외자본 유

11) 팔머는 중앙집권적인 페루와 달리 에콰도르는 상대적으로 정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국내적 합의가 중요했고, 이는 협상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Palmer 2001).

치, 그리고 후지모리 대통령과 IMF와 세계은행 사이의 협력 관계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경제성장을 도왔고, 인플레이션 역시 통제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998년 엘니뇨현상과 아시아의 금융위기, 그리고 페루의 대표시장중 하나인 브라질 시장의 불안정해지면서 이듬해 페루는 극심하게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어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정권의 주요 정체성으로 삼아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경제성장으로 부패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형태였다. 이는 페루에선 경제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평화협정이 실패할 경우 잃게 될 지원 보상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 그 이상이었다.

또한 후지모리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목표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는데 이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제거, 좌익 게릴라 해체, 그리고 에콰도르와의 평화협정이었다. 후지모리 대통령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선 평화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Sharpiro 2017).

3. 신현실주의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한계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과 해결 과정은 측정 불가능한 다양한 변수가 있었고, 이는 복잡한 국내외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신현실주의 시각으로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을 분석함과 동시에 해결 과정의 설명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신현실주의적 이론 분석틀을 언급할 때는 왈츠를 빼놓고 논의할 수 없다. 왈츠는 어떠한 상황을 볼 때 그 근원을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평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설명하게 된 원인인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왈츠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며, 구조가 단위들의 근본성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행동에 제약을 둔다고 설명한다(Walts 1959, 2; Walts

1979, 100, 118). 즉, 신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국가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현실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에 의해 발생한 평화 협정이라도, 국제협력만 봐야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행된 전쟁 그리고 그 원인을 봐야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이은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의 국경 분쟁의 원인 역시 고찰하고자 한다.

신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국제정치의 핵심은 생존, 안보, 그리고 자조이다. 자조는 무정부적 질서에서 발생하며 이는 전쟁과 같은 재앙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나타나는 행동원리이다(Walts 1979, 111). 국제체제는 무정부성을 가지고 극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중앙권위체의 부재에 의한 무정부성은 국제체제에서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국가들로 하여금 생존이 걸린 자조의 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이어서 국가는 상대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하여 내부 노력으로 힘을 증강하거나 외부적인 노력으로 동맹을 맺지만 불확실성의 문제로 인해 내부 노력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구조는 주요국이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이며, 국가 간 능력의 배분을 강대국의 숫자로 정의하고 국가의 총체적 힘인 권력능력의 배분정도를 극성(polarity)라 하여 단극, 양극, 다극으로 나누어 구조를 분석하고 국제체제의 안정성은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양극체제가 나머지 체제보다 안정적이고 다극체제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주장한다(Walts 1979, 118, 159-179). 패권국이 강대하면 체제는 안정적이지만, 쇠퇴하게 되면 불안정해진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왈츠는 국제체제의 변화 요인인 극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극성이 변화할 때 구조의 변화가 야기되고, 이런 구조의 변화는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단위 수준인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 분석틀을 바탕으로 에콰도르와 페루의 분쟁 시작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스페인은 16세기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 패권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하다.¹²⁾ 하지만 19세기 전반에 들어가며 스페인의 패권적

12) 스페인은 16세기 패권국이다. 스페인은 17세기 들어가며 힘을 많이 잃었지만, 상대적으로 19세기 전반까지 성공을 거두고 생존하고 있었다(Cardim 2012). 지금 연구대상 사례인

위치가 사라지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벌이던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했다. 에콰도르와 페루의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었다. 우티 포시테시스 주리스를 통해 경계선을 확정한 두 나라는, 중재국 없이 국경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다. 위 상황은 스페인이라는 패권국이 무너지며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약소국이 탄생하고 그들끼리 국경선 문제로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신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강력한 패권을 가진 스페인이 무너져 단극체제였던 중남미의 구조가 바뀌고 다극이라고 보기 애매한 다양한 국가가 중재자 없이 등장함으로써 갖은 분쟁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에콰도르와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전쟁을 시작했다. 패권국이 존재 유무에 따라, 극이 변화함에 따른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단극체제이던 중남미 지역에 스페인이 물러가며 수많은 독립국이 등장하며 구조와 체제가 변해버렸고 이는 신생독립국 사이에서 분쟁을 낳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으로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결국 신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의 발생 원인은 단순히 협상이론에서 말하는 협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즉 패권국이라는 극의 상실이 두 국가의 분쟁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현실주의 시각으로는 이후의 과정, 즉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제협력과정 이후의 평화협정이라는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적 성격을 강조하며 국가의 목표는 생존확보가 우선인 자조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왈츠의 이러한 생각의 영향을 받은 신현실주의 계통의 연구자들은 국제협력에 대해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보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몇 백년간 스페인의 지배에 있었으며, 문화뿐만 아니라 행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은 중남미에서는 19세기 전반까지 어떤 나라보다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현실주의 기반의 국제상황 분석은 국제정치란 무정부 상태의 조직 원리와 자력 구제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이론적 입장에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은 국제관계는 강등을 규율할 초주권적 권위가 없는 상황이며, 갈등과 전쟁 배반이 평시의 사태인 상황으로 협력과 제도는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복되고 무효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라고 파악한다(전재성 2000). 즉 국제협력은 신현실주의의 입장으로만 보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일이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발생에 대한 신현실주의자의 부정적인 입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Krasner 1983; Keohane 1984).

결국 신현실주의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이 스페인이라는 국이 무너지며 발생하였다는 분쟁의 발발 원인 설명에는 적합하지만, 신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에콰도르와 페루의 협력 나아가 보장국 간의 국제 수준의 초국가적 국제협력에 이은 평화협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익보다 손실의 영역에 집중하고,¹³⁾ 상대적 이익보다는 절대적 이익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국내정치영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상현·박윤주. 2015. 「에콰도르-페루 국경 분쟁의 결과와 의미」. 『이베로아메리카』. 제17권 1호.
 양준희·박건영. 2011. 「월츠의 환영」.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3호.

13) 이러한 관점에 대한 설명 이론으로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 있다. 전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는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2). 참조. 전망이론의 국제정치에 적용한 사례는 Jack S. Levy, "Loss Aversion, Framing Effect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erspectives from Prospect Theory,"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Ross McDermott, 2004. "Prospect Theory in Political Science: Gains and Losses From the First Decade," *Political Psychology* 25(2). 참조.

- 전재성. 2000.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 전재성·박건영. 2004.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 BBC News. 1998. "Peru and Ecuador Sign Border Treaty." October 27.
- Biato, Marcel Fortuna. 2016. "The Ecuador-Peru Peace Process." *Contexto Internacional*. Vol. 38(2).
- Cardim, Pedro. 2012. *Polycentric Monarchies: How Did Early Modern Spain and Portugal Achieve and Maintain a Global Hegemony?* Sussex Academic Press.
- Chi, Shunji. 2014. "Conflict Transformation: The East China Sea Dispute and Lessons from the Ecuador-Peru Border Dispute." *Asian Perspective*. Vol. 38.
- Chicago Tribune. 1998. "Ecuador, Peru May Be On Border Of A Peace Deal But Issues Could Yet Prolong Land Dispute." August 04. by Goering, Laurie
- Daniel Bessner and Nicolas Guilhot, "How Realism Waltzed Off: Liberalism and Decisionmaking in Kenneth Waltz's Neoreal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40, No. 2 (Fall 2015), pp. 87-118
- Fisher, R., & Shapiro, D. 2006. *Beyond reason: using emotions as you negotiate*. London: Random House Business Books
- Grieco, Joseph M.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ic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 Jacome, Luis. 2004.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in Ecuador: Institutional Weaknesses, Fiscal Rigidities, and Financial Dollarization At Work. IMF Working Paper.
- Jervis, Robert. 1999. "Realism, Neoliberalism, and Coopera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1).
- Keohane, Robert O. 1983.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In *International Regimes*, edited by S. Krasn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lroy, Jr. Richard J. 2009. "Guaranteeing Peace in Latin America: A Case Study in Conflict Resolution Involving the Peru and Ecuador Border Dispute of 1995."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eeting, Santiago, Chile.
- Krasner, Stephen, ed. 1983. *International Regim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res, Dave. "Deterrence Bargaining in Ecuador and Peru's Enduring Rivalry: Designing Strategies Around Military Weakness." *Security Studies*. Vol. 6.
- McBride, George MacCuthen. 1949. "Ecuador-Peru Boundary Settlement."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 Palmer, David. 1997. "Peru-Ecuador Border Conflict: Missed Opportunities,

- Misplaced Nationalism, and Multilateral Peacekeeping.”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9(3).
- Palmer, David. 2001. “Overcoming the Weight of History: ‘Getting to Yes’ in the Peru-Ecuador Border Dispute.” *Diplomacy & Statecraft*. Vol. 12(2).
- Peneder, Reinhard 2005. “What Europe can Learn from South America, Conflict Resolution in the Border Conflict between Ecuador and Peru.” *Pace diritti unmani*. No.3
- Seibold, Balthas 1998. “Peru-Ecuador Peace Agreement: Hemisphere’s Last Armed Territorial Dispute Finally Settled.” *Council on Hemisphere Affairs*. http://wwwwebwort.de/peace_peru_ecuador.htm.
- Shapiro, D. 2017. *Negotiating the nonnegotiable: how to resolve your most emotionally charged conflicts*. New York: Penguin Book.
- Simmons, Beth A. 1999. “Territorial Disputes and Their Resolution: The case of Ecuador and Peru.” *Peaceworks Paper*. No. 27.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The Carter Center 2010, *Approaches to Solving Territorial Conflicts: Sources, Situations, Scenarios, and Suggestions*. Atlanta: Georgia.
- Ventrua, Jaime P. 2000. “Money Demand and Inflation in Peru, 1979-91.” *Economic Commentary*.
- Krieg, Willam L. 1986. *Ecuadorean-Peruvian rivalry in the Upper Amaz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 Waltz, Kenneth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